**平和統一運動次世代リーダー育成のための**

**「私から始まる平和統一大賞」青年スピーチ部門及びエッセイ応募原稿フォーマット**

**■「私から始まる平和統一大賞」とは**

　’為に生きる’神様主義の真の愛を根本精神として国籍と思想、組織を超越して、国内外の韓民族の和合と統一の実現を目指す平和統一聯合は、2024年より平和統一運動を同世代や後に続いていく世代の力とするために、この賞を創設いたしました。

**■今年の募集テーマは「ＳＮＳ（ソーシャル・ネットワーキング・サービス ）」**

SNS（Facebook、X、Instagram、Line、KakaoTalk、TikTok、YouTube など）を通じた在日同胞や海外同胞との出会いや体験。自分が携わってきたプロジェクトにSNSを活用して成功した事例や失敗。そして、そこから得られた教訓など、これらの事を通じて、今の時代に合う平和統一運動をどのようにしたらよいか、またどのような発信が良い影響をもたらすのかなど、様々なエピソードを募集いたします！

|  |  |
| --- | --- |
| 応募条件 | 平和統一聯合に所属している会員、担当者。または左記から紹介を受けた方。 |
| 募集期間 | **青年スピーチ部門：**募集日程及び大会日程は、ホームページ及び機関誌『平統解放』にてお知らせ致します。※ 第１連合会（北関東・東京・南関東）、第２連合会（北海道・東北）、第３連合会（東海、北信越）、第４連合会（近畿・中国・四国）、第５連合会（九州・沖縄）において、2025年6月15日（日）まで地方予選を行い、それぞれ代表１名を選抜し、本部に映像提出。**会員及び一般部門　エッセイ募集：**　2025年４月１日（火）～2025年６月15日（日） |
| スピーチ原稿規程 | **【青年スピーチ部門】**５分以上７分以内（制限時間を超過した場合は減点）。※パワーポイント使用可。**【会員及び一般部門　エッセイ募集】**800字以上3000字以内、１人１点。※両部門とも主となる言語を日本語で行うこと。部分的に韓国・朝鮮語、または他国の言語を使用しても良いが、日本語の意味を付け加えること。 |
| 応募方法 | Wordファイルのまま、応募フォームよりご応募ください。※ 青年スピーチ部門に応募の方も、同様に原稿を提出してください。郵送、FAXでのご応募はご遠慮いただいております。 |
| 発表 | 2025年６月下旬　ホームページにて公開。入賞者には、メールまたはお電話にて直接ご連絡をさしあげます。両部門の大賞受賞者は、７月４日東京都内の記念行事でスピーチします。その交通費は本部負担。 |

**題名：　日韓国交正常化60周年を　迎えて　近くて遠い国から　近くて近い国へ**

**お名前：　宋幸哲**

(下記より本文をご記入ください)

제목: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 하며

가깝고도 먼 나라에서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 하는 뜻깊은 한 해를 맞이해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일본과 한국이

새로이 도약 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옛날 옛날 옛적에는 가깝고도 가까운 두나라 관계 였다

이 백년 전에는 조선통신사가 몇 십 번을 왔다갔다 하며 한국과 일본이 그리고 일본과 한국이 문화와 교류를 활발하게 하던 관계였다

백 여년 전에는 서로가 가슴이 아프고 기억하고 싶지 않고 않는 그러한 한국과 일본의 관계였다.

아 아 그러나 지금은

일본인은 한국의 K-Pop, K -드라마 ,K -음식 등

한류 문화를 가장 좋아하는 관계이고

한국인은 일본의 음식 ,일본의 에니메이션 등

일본의 문화를 가장 좋아하는 두 나라 관계이다

그리고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과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과 하나 되고 싶어서 서로 관심 갖고 사랑하며 그리고 수 많은 이들이 국제 결혼을 하는 관계가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인과 일본인 그리고 일본인과 한국인의 결혼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수 없이 한국과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 사람은 일본을 사랑하고 관심 가지며 여행하고 싶어 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고

일본 사람은 한국을 사랑하고 관심 가지며 여행 하고 싶어 하고 같이 살고 싶어하는 관계가 되었다

나라와 나라의 관계성도 중요하지만

한국인과 일본인 그리고 일본인과 한국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교류하며 하나 되고자 하며 살아 가고자 노력함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때임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앞으로 그리고 미래에는

두 나라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형제 자매처럼 지내며

부부처럼 지내며 부모가 되어

한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사이좋은 관계로 살았으면 좋겠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 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도약과 비약적인 발전을 기원하며

2025년 6월 22일 새벽동틀녁에 송 행철

タイトル：日韓国交正常化60周年を　迎えて　近くて遠い国から　近くて近い国へ

今年、

日韓国交正常化60周年という意味深い一年を迎えて

韓国と日本そして

日本と韓国が

新たに飛躍する一年になることを願って

韓国と日本そして

日本と韓国は

昔々その昔には近くて近い両国関係だった

二百年前までは

朝鮮通信使が数十回行ったり来たりして

韓国と日本がそして日本と韓国が文化交流を活発にしていた関係だった

百余年前にはお互いが胸が痛くて思い出したくないそんな韓国と日本の関係だった。

ああ、しかし今は

日本人は韓国のK-Pop、K-ドラマ、K-食べ物など

韓流文化を一番好きな関係で

韓国人は日本の食べ物、日本のアニメーションなど

日本の文化を一番好きな両国の関係だ

そして韓国人は日本人と日本人は韓国人と一つになりたくてお互い関心を持って愛し、そして多くの人が国際結婚をする関係になった

そうして韓国人と日本人、日本人と韓国人の間に生まれた子供たちが

数え切れないほど韓国と日本で暮らしている

そうして韓国人は日本を愛し、関心を持ちながら旅行したいし、暮らしたい

日本人は韓国を愛し、関心を持ち、旅行したいし、暮らしたい関係になった

国と国の関係性も重要だが

韓国人と日本人そして日本人と韓国人の

一人一人が主人になって交流し、一つになって生きようとする努力が切実に必要とされる時であることを切実に感じるようになる

これからそして未来には

二つの国が切っても切れない

兄弟姉妹のように過ごしながら

夫婦のように過ごしながら父母となって

一つの家族のように過ごせる

そんな仲の良い関係で生きて欲しい

韓日国交正常化60周年を記念して

新しいステージへの飛躍的な発展を祈りながら

2025年6月22日　夜明け前に

宋　幸哲